



순종하는 지혜

부산 선교부장
이 호남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지혜로운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분은 항상 마을 청년들에게 옳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잘못된 것을 꾸짖고 고쳐 주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항상 자기들의 잘못을 꾸짖고 충고하는 이 현자를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청년들은 이 현인을 마을에서 떠나도록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들은 현자에게 이런 문제를 내놓았읍니다.

“지혜가 많으신 선생님, 오늘 우리들이 문제를 드려서 답을 맞히시면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맞히지 못하시면 우리의 충고자가 되지 마시고 이 마을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여 기 손 안에 작은 새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새입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새입니까?”

이때 현자는 문제를 제시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읍니다.

“그 새의 생사는 너희에게 달렸다. 내가 ‘살아 있다’ 하면 꼭 귀어서 죽일 것이요 ‘죽어 있다’ 하면 그대로 산채로 내놓을 것이 아니냐.”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시인하며 그 현인을 기꺼이 다시 스승으로 받들기로 약속하였읍니다.

그 젊은이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 현인을 기꺼이 스승으로 받들었읍니다. 겸손하게 제자의 자세로서 스승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가장 용기있는 자는 자기의 양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성공과 실

패, 기쁨과 슬픔 등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좌우됩니다.

우리들은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의로운 생활을 하는 과정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께서도 범으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생활의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율법이 있으니 모든 축복은 이 율법을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활의 기준,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율법을 순종하는 지혜는 고등 교육 기관이나 과학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곳을 잊어버릴 때 위험합니다. 농부는 농토를 떠나서는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학생이 책을 멀리하면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은 복음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슬픔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늘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있으면서도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인하여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망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지상 생활을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좇아 생활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브래샤 자매, 브리감 영 대학교 주최 하와이 전 여성 대회에서 한국 고유 문화 소개



아리랑 제에



장녀 리사



한복을 입고 청중의 탄핵을 받은 브래샤 자매의 두 딸



모래사 자매



가야금 연주

한국의 고유한 의상과 춤과 아름다운 민요가 가야금의 선율에 실려 이곳 브리감 영 대학교 주최 하와이 전 여성 대회에서 발표되어 갈채를 받았다. 한국의 물론 자매인 지니 북동 브래샤 자매와 그의 두 딸은 이 대회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패션 쇼에 출연하여 한국의 고유한 멋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제인 가세이드 박사에 의해 계획된 이 대회는 개교 25주년 기념 행사로 베풀어진 것인데 여성의 업적을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이 대회의 각종 활동과 행사에 참석한 여성은 연 2,500명이 나 되었다.

이 주간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행사는 패션 쇼였다. 약 10개의 문화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각종 활동에서 여러 번 한국을 소개한 바 있는 브래샤 자매는 그녀의 딸과 함께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여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브래샤 자매와 그녀의 딸, 리사(13세)와 미비(4세)는 잘알려져 있는 한국의 전통

적인 의상을 입고 도라지 춤을 추었고 브래샤 자매는 가야금으로 한국의 민요를 연주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연주하여 청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다.

브래샤 자매는 한국 서울 태생으로 1964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남편과 함께 하와이로 오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브래샤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보다 나은 가정과 1979년도에 지역 사회를 위해 과거 16년간 일해온 공로 때문에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여성에게 수여되는 "Outstanding Young Woman of America"에 선발된 바 있다. 그녀는 항상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라이에와 브리감 영 하와이 캠퍼스에서 "한국의 민간 외교 사절"로 알려져 있다.

수년 동안 이곳 라이에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통해서 한국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다. 브래샤 자매는 문화적인 이해를 통해 여러 민족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과학자며 훌륭한 신앙인인 말일성도 화학자, 헨리 아이링 박사



오른쪽부터 헨리 아이링 박사, 데이비드 피 가드너 총장,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상의 가족과 친구와 친지가 명성이 높은 이 화학자를 칭송하기 위하여 모였다.

2년 전에 건축한 유타 대학교의 화학관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일성도 과학자인 헨리 아이링 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12월 9일 새로운 아이링 건물의 로비에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상의 가족과 친구와 친지가 명성이 높은 이 화학자를 칭송하기 위하여 모였다.

유타 대학교의 데이비드 피 가드너 총장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금년 79세의 과학자가 과학계와 유타 대학교와 세계를 위해 공헌한 업적을 찬양하였다.

헨리 아이링 박사는 1901년 멕시코 후아레스 콜로니아에서 18명의 자녀를 둔 상당히 부유한 목장주의 세계 자녀이며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에드워드 크리스찬 아이링과 어머니 카롤린 코트맨 롬니는 그가 어렸을 때 그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었다. 그는 젊었을 때 일을 사랑하는 것과 공헌하는 것을 배웠다.

1900년대 초에 있었던 혁명 기간 동안 아이링 가족은 그곳을 떠나 애리조나로 가

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거기서 학교를 마쳤다. 그는 광산에서 일하려고 했으나 직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의 모교에서 화학 교수로 일했다. 그는 그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위스콘신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와 유타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교수로서 헨리 아이링은 유례없는 인물이었다. 매년 유타 대학교의 학생 지도자들이 누가 학생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교수인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는 매년 가장 많은표를 얻는다. 학생들은 복잡한 화학 이론에 관한 그의 간결한 설명과 그의 일에 관한 열성과 강의에서 보인 지칠 줄 모르는 정력에 놀란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와 브리감 영 대학교, 마케테 대학교, 노트람 대학교와 한국의 서울 대학교를 포함한 15개 종합 대학교와 단과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한 미합중국 과학 훈장과 미국 화학 협회로부터 조셉 프리에스트리 상을 받았고 스웨덴 학술

원에서 버지리어스 금메달을 받았고 금년에 울프 재단에서 유명한 울프 화학상을 받았다.

학문적인 지식과 세계적인 존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고 예리한 신앙인으로 생활하는 분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진실된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모순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모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과학의 원리와 종교의 원리의 조화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우주의 영원한 진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벌 대관장의 부인인 카밀라 자매의 동생이며, 대관장의 처남인 아이링 박사에게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그의 성공은 예리한 지성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야망과 에디슨과 같은 노력과 인내력과 깨끗한 생활의 조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과학의 분야에서 이론 그의 업적은 그를 위해 중요하지만 가족과 교회와의 유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

아르헨티나에서 개종한 116세의 노인과 그의 가족



산투스초와 그의 아들 산투스초(중)

니콜라스 산투스초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피비린내 나는 남북 전쟁으로 분단된 미합중국을 통일하려고 하였고 브리검 영은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었다.

116년 후에, 니콜라스 산투스초는 50명 이상의 자손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디고메즈, 캐나다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받았을 때,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형제에게 있었던 모든 일은 거의 기적이었습니다.”라고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선교부의 엔젤 마브리아 선교부장은 말했다. 실제로 그는 110여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아 왔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이 태어난 도시인 아르헨티나 크루스 델 에헤이 주위의 농장에서 일했다. 수년 후에 그는 농장을 떠나 외판원이 되었다. 그가 현재의 아내인

후애나 레타모스를 만난 것은 그가 외판원으로 여행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당시 그의 아내는 14세였다.

72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그들은 17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 가운데 12명이 현재 생존해 있고 산투스초 자매는 남편보다 1주일 후에 침례받았다.

금년 86세의 아내에 대해서 산투스초 형제는 “그녀는 나보다 더 젊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4대에 걸쳐 족장인이 형제는 아직도 예리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신문과 잡지 기자로부터 그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회피하고 단지 이렇게 말한다.

“장수의 비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

경북 대학교 교내 물몬 전시회



상: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는 권찬태 교수
 하라: 학생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회원
 하중: 버드나무에 포스터가 붙어 있다.
 하우: 가정의 밤에 대하여 설명하는 회원



지난 1980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경북 대학교 학생회 주최로 물몬 전시회를 가졌다.

교내 일청담 옆 버드 나무길과 시청각 교육실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자세히 알리는 모임이었다.

“인생의 목적” “가정은 지상의 천국” “물몬이란?” 등의 표어와 사진, 그리고 그림 등을 버드 나무마다 걸고, 문의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답해 주었다.

교내 학생은 물론 많은 시민이 관람하였으며 연인원 약 오천 명이 전시회를 관람했다.

한편 시청각 교육실에서는 “고대 미대

륙은 말한다”와 “자니 링고” 등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경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학생회장인 전 재영 형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교내에는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또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 호남부 산 선교부장님 이하 최 갑수 지방부장을 비롯하여 수고한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표시 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지도한 경상대 권찬태 교수는 서울에서 잠실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다가 얼마 전에 경북 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신 분이기도 하다. *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년 음악제



지난 1980년 12월 6일 서울 서 스테이크 제7와드에서 제4회 청년 음악제가 열렸다.

스테이크 산하 와드 지부의 독신 성인들이 평소에 닦은 실력을 이날 마음껏 발휘하였다. 와드 지부 독신 성인 대표들은 모시는 글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표하고 찾아내지 못한 재능을 발굴하여 발전시키며 미숙한 점을 지도 받아서 갖고 있는 재능을 더욱 빛내도록 하자"고 말하였다.

출연한 독신 성인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한 보람으로 전문가 못지않는 우수한 발표를 하였다.

이번 음악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말씀에 이어서 고전 음악 순서 제2부는 경음악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특별한 순서로 서울 북 스테이크 양 경신 자매가 출연하여 본인이 작곡한 "박"과 고린도 전서 13장을 주제로한 "사랑"을 발표하여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양 자매는 "1979년도 상호부조회 작곡 경연 대회"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작곡 부문에서 영예의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서울 동 신학 연구원 헌납식

지난 1980년 11월 23일(일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 동 신학 연구원 헌납식을 가졌다. 약 145여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하였으며, 감리 및 헌납 기도는 한 인상 장로가 하였다.

한국의 신학 연구원은 미국을 제외한 곳에서는 유일하게 헌납된 건물들 2개나 갖고 있다. 현재 부산에 건물들 세우기 위하여 대지를 확보하였다.

신학 연구원 건축 약사는 다음과 같다.

신학 연구원 건축 약사

- 1972. 8. 서울 중구 무교동 남강빌딩 3층 85평을 빌어 개원
- 1975. 6.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신촌)에서 한국 서울 서 신학 연구원 건축 기공식
- 1975. 11. 20.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준공 서울 서 신학 연구원으로 이전 개원
- 1976. 9.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의 감리로 서울 서 신학 연구원 헌납식
- 1979. 2. 5. 교회 교육 기구 부교육감 스탠리 에이 피터슨 형제의 참석하에 서울 동 신학 연구원 기공식을 거행
- 1979. 12. 27.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준공
- 1980. 3. 6.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입주
- 1980. 11. 22. 부산 신학 연구원 대지 구입
- 1980. 11. 23. 한국 지역 대표 한 인상 장로의 감리로 헌납식 거행 ※